

자기소개서

소속	○○○	직위	○○○	성명	○○○
----	-----	----	-----	----	-----

저는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음에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셨던 부모님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고향인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병역: 30개월 만기 전역 - 예비역 육군 병장), 1998년 3월부터 진주동명고등학교에서 현재 23년째 교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단지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직장’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나라를 위한 더 큰 봉사라고 할 만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 교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직에 몸을 담고 몇 년이 지나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로는, 제 스스로 참된 지혜를 얻고 폭넓은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추구하고자 과학교육학 석사, 역사교육학 박사, 영어영문학 학사, 경영학 학사 등, 십수년을 통해 여러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행정학을 전공하여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면서 ‘학문적 기초가 없으면 현상(現象)을 논할 수 없다’라는 신념 아래, 제가 배우고 익힌 것을 후학(後學) 지도에 그대로 응용하면서 매일 교육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공통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 공부하는 왜 하는 것인가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목표 의식이 없는 학생들의 푸념으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식견과 몸에 배어있는 운동 감각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수 없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둘씩 모아서 자기 자신에게 저장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란다.”라는 대답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지 지식만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올바른 전인교육(全人敎育)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의 발현으로 다양한 정서적(情緒的) 측면의 공부도 함께 병행하여, 그로부터 획득한 통찰력을 학업 일변도에 빠진 후학(後學)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하며 지·덕(智德)이 함께 공존하는 균형 있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학 학부 시절에 논어(論語)와 예기(禮記)를 공부했었는데(한자 1급 자격증 취득), 그때 익혔던 동양철학(東洋哲學)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서양사(西洋史)를 융합함으로써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조화롭게 통섭(統攝)하고, 그런 과정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식견(識見)들을 학생들에 전달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응용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국가의 훌륭한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주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저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꿈과 신념을 바로 세우며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올바른 진로를 선택한 결과, 입시와 취업에서 만족할 만한 성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당장 기쁨에 만취하기에 앞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사명감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매년 고쳐 세웠습니다.

저는 해외 교육지원활동을 통해서도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국제기구 「월드비전」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산골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민베일 체헤이’라는 아이의 공부를 수 년 동안 지원하며 교류해 왔는데, 얼마 전 받게 된 편지 속 사진을 통해 올해 민베일의 키가 유달리 쑥 자라서 건강한 체격의 늙은 청소년이 된 것을 보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민베일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하기에, 지금은 또 다른 인연으로 케냐의 ‘밤바’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암 파이스’라는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재능을 육성하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의 도구임과 동시에, 진로와 진학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직시하여,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기축으로 한 ‘교사의 교과목 개설 능력 제고’, ‘다채롭고 실용적인 교과목 편성’, ‘교과 교실 제의 효율적인 운용’, ‘도서관, 급식소, 체력단련실, 음악감상실 등을 활용하는 공강(空講) 시간 동안의 학생 관리’ 등 향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교육·인문·경영·행정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에 성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교직원들은 사명감을 완수하여 보람을 느끼며,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로부터는 ‘혁신을 통해 제대로 성공한 모범학교’라는 명성을 획득하는, 바로 이러한 교육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과 방안들이 필요한지 항목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구상과 기획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퇴근한 후, 매일 밤늦도록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여러 분야의 학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섭렵하면서 꾸준히 천착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여러 학회들을 통해 「플라톤 사상이 근대 천문학 탄생 과정에 끼친 영향」(2012)을 비롯해 5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제가 번역해서 엮었던 『티코 브라헤: 천체도를 제작하다』(2010), 그리고 제 연구 자료들을 요약·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펴냈던 『우리가 잘 몰랐던 천문학 이야기』(2015), 이 두 권의 책이 2017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를 비롯한 권위가 있는 여러 학회에 소속되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활동들이 점차 알려지게 되어, 뉴스 채널 YTN에서 단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과학사(科學史)’를 주제로 하여, 서울 YTN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천문학 이야기』에 수록된 유익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2016년 10월 4일). 그리고 ‘과학영재의 육성’이라는 제 신념을 좀 더 다양한 학생들로 확대하여 실천하기 위해,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출강하여 과학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과 함께 ‘과학의 발달 과정과 우주론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다년간(2012년, 2013년, 2016년) 과학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당시 과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히 창의적인 해석이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저는 고교생활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만 간주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우선 학교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천체 관측 행사를 계절마다 개최하여 직접 천체망원경을 조작해 보고, 렌즈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계절별 별자리를 촬영하는 등,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가 ‘행복을 만드는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요약하면, ‘첫째, 학교운영 위원회를 위시하여 전체 교직원, 학부모 대표단, 학생자치위원회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협의 과정을 통해 고성중앙고등학교의 기존 교육 시스템을 단계별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 둘째, 창의적이며 통섭에 기초한 선진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지향하며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지덕체(智德體) 인격을 겸비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유익한 교육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 셋째, 화합과 협력을 통해 고성중앙고등학교가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미래지향적 교육목표들을 온전히 달성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명문학교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가장 선두에서 견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개와 포부 피력을 마치겠습니다.